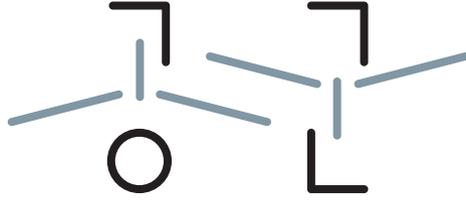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fzine.co.kr>



2022  
09  
5 3 1



PITCH  
BLACK

# Contents

04	기획	대한민국 공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호주 Pitch Black 최초 참가
10	특집	생명을 다시 끈질기게 만드는 사람들, '공군 하트세이버'
<hr/>		
16	Aero Detail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세계
22	무에서 유를	기창(旗槍) - 깃발 신호에 목숨을 걸다
26	내 옆의 공군인	울릉도 공군 장병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황영임 조리사
32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Pitch Black에 참가한 우리 공군 (일병 황원진)  
표 지(뒤) 공군 생명 지킴이 (자토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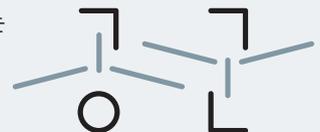
발 행 일 자 2022년 9월 1일(통권 제531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상화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윤영삼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김용휘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2080292)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40	한 달, 한 권	다섯번째 산
42	명상을 말하다	내적 변화
44	영화로운 나날	『비상선언』, 끊임없이 현실을 소환하는 재난
46	클래식 특특	4분 30초의 역사
48	트렌드가 보인다	Z세대에게 아날로그란?
<hr/>		
50	생각하는 그림	다행이다
52	공군인의 편지	인생의 무게 (공군제91항공공병전대 공병대대 병장 김경내)
53	책읽는 공군	능력주의의 폭정 속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길 (제3미사일방어여단 일병 심창범)
54	수용의 미학	감흥이 없다
55	마음의 소리	독자 참여 코너





# 대한민국 공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호주 Pitch Black 최초 참가



Pitch Black을 앞두고 사전 진행된 공중급유 훈련

대한민국 공군이 호주에서 이뤄지는 연합공중훈련, 'Pitch Black<sup>1)</sup>'에 처음 참가했다. Pitch Black은 호주 공군이 주관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공군이 참여하며 대규모 공격 편대군 훈련, 대량 항적 요격 훈련, 긴급차단 훈련 등을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으로 호주 북동에 위치한 다윈·앰벌리 공군기지에서 이뤄진다. 우리 공군은 8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현지적용 훈련을 마치고 8월 29일(월)부터 9월 7일(수)까지 진행된 본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적 세력이 호주 북부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를 격퇴하기 위한 연합 전력을 운영해 다양한 공중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실전적 훈련으로 구성되어 훈련을 통한 우리 공군의 연합 작전 능력과 참가국 간 관계 향상 등이 기대된다.

지난 2010년, 호주 측의 제의를 계기로 2018년까지 훈련 참관만 하던 우리 공군의 정식 훈련 참가는 이번에 최초로 이뤄졌다. 2021년 4월에 이뤄진 한-호주 공군 대공군회의와 동년 9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개최한 「태평양 공군지휘관 심포지엄」 간 한-호주 양자

회담 당시 우리 공군의 '22년 Pitch Black 참가가 본격 추진된 것이다.

이번 훈련에는 KF-16 전투기 6대와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1대가 참가했다. 참가 항공 전력은 모두 직접 운항해 가는 Ferry 비행으로 한국에서 출발해 필리핀(클락)을 거쳐 호주 다윈까지 전개했다. 특히, 이번 전개 중에는 공중급유 임무도 이뤄졌다. KC-330 도입 이후 해외 전개 도중 공중급유 임무는 이번이 최초로 부여된 것으로, 우리 공군의 작전 수준이 한층 더 성장한 계기가 됐다.

공군은 다국적 연합 공중작전 수행능력을 신장한 'Red Flag Alaska' 훈련,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에 협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수송한 '미라클 작전' 등 과거 해외에서의 훈련과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토대로 호주 상공을 밤낮으로 날며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위해 공군은 어떤 준비과정을 거쳤을까. Pitch Black에 참가한 KF-16 조종사 허준 소령과 KC-330 급유통제사 김선준 상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1) 'Pitch Black'은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점을 함의하며, Pitch Black 훈련은 달의 모양을 고려해 훈련지역 하늘이 가장 어둡게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된다. 이 시기는 달빛이 없어 하늘이 맑고 어둡기 때문에 더 나은 시정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야간비행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다.



Pitch Black 훈련에 참가한 KF-16 조종사 허준 소령



**AF 이번 훈련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저는 Ferry 임무 편대의 팀장으로, 호주에서 비행하게 될 6대의 KF-16 전투기를 중원기지에서 호주 다윈기까지 직접 비행하여 전개하는 임무를 계획했으며 해당 임무 편대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AF Pitch Black 훈련에 최초로 참가하게 되어 마음가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Pitch Black 훈련 참관을 통해 다년간 검증해온 여러 선배 조종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도 저와 같은 임무를 맡게 될 후배 조종사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AF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조종사들의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조종사가 우수한 비행 기량을 갖춘 것은 물론이며, 타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위한 어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Ferry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는 공중급유 경험이 많고 장시간 비행을 하기 위한 자기 의지가 강한 조종사를 선발했습니다.

**AF 이번 훈련에서 최초로 시도한 세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째는 Pitch Black 훈련에 최초로 참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와 최초로 Ferry 임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연합훈련 최초로 단좌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F 최초인 만큼 더 철저히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전개 시 필리핀을 경유하고 호주에서 임무를 하는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해외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를 분석해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C-330 임무 요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해외 Ferry 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악기상이나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단좌 전투기 조종사는 홀로 조종석 내에서 상황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단좌 전투기를 포함한 편대 전체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비행환경 조성과 완벽한 항공기 상태 준비에 신경을 썼고 비상상황 발생 시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호주 다윈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는 KF-16



전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KF-16 조종사들이 자축하고 있다.

### AF 조종사들은 이번 훈련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해왔습니까?

장시간 해외 Ferry 임무 경험이 없는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유사 환경에서의 임무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탑승 훈련, 생환 교육 그리고 실제 비행을 통한 장시간 체공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Ferry 임무는 필리핀을 경유한 이틀에 걸친 비행이었지만 유사시 중간 기착 없이 하루 만에 전개할 수 있도록 8시간 동안 시뮬레이터를 탑승하여 조종사의 장시간 임무 능력을 배양하고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생환 교육대에서 현지 환경에 맞는 특별 생환 교육을 받고 조난시 생존할 수 있는 지식을 함양했죠. 무엇보다도 실제 Ferry 임무환경과 가장 유사한 상태에서의 장시간 체공 훈련은 실제 전개와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비행시간 동안 진행해 Ferry 임무를 최종 점검했습니다.



호주 다윈 기지에 도착한 허 소령이 쉐인 맥브라이드(Shane McBride) Pitch Black 훈련단 본부 참모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AF 장시간 체공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장시간 체공 중 조종사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점은 좁은 조종석 안에서 지루함과 싸움을 하는 것이고 특히 단좌 전투기 조종사는 조종석에 혼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평소 비행 훈련을 통해 편대원 간 팀워크를 증진 시키고 비상상황 시 안전한 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각 위치별 역할 수행 등을 연습했습니다.

### AF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전술 교류와 다양한 항공기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작전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 연합임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최초로 시행하는 KC-330과 단좌 전투기 Ferry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해 우리 공군이 앞으로 전세계에서 이뤄지는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급유통제사 김선준 상사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61공중급유비행대대



Pitch Black 훈련 전개에 참가한 급유통제사 김선준 상사

### AF 이번 훈련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요?

저는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급유통제사로서 Pitch Black 훈련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호주까지 전개하는 KF-16 전투기 공중급유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AF Pitch Black 훈련에 최초로 참가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리 공군의 단독 전력만으로 해외훈련에 참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동안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거듭해온 것을 토대로 성공적인 공중급유 임무를 완수 하겠습니다.

### AF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급유통제사들의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적인 훈련 참가를 위해 KC-330 초도 도입 요원과 지난 2021년 Red Flag 등 해외 임무 경험을 고려해 훈련 요원을 선발하였습니다. 급유통제사 양성과 공중급유 자격획득 훈련 등의 사유로 모든 급유통제사 전력이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급유통제사 인원 중에 선발해야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 AF 이번 훈련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개인 건강과 체력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공중급유는 공중급유기와 피급유기 모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급유통제사, 피급유기 조종사 모두 강인한 체력이 뒷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공중급유 훈련을 하고 있는 급유통제사들

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유행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격리 기간으로 인해 준비 훈련과 본 훈련인 Pitch Black 참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썼습니다.

**AF Pitch Black 참가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집중 훈련을 통해 호주 전개 중 장시간 체공에 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훈련할 때 호주 전개 구간과 동일한 임무 고도에서 급유함으로써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했습니다.

**AF 평소 성공적인 공중급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특히 Pitch Black은 우리 공군 자체 전력만으로 참가하는 연합훈련이기에 총 6대의 KF-16을 호주까지 안전하게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전한 공중급유를 위해 급유기와 피급유기 모두의 기량과 집중력, 소통이 완벽해야 성공적인 공중급유가 가능합니다.



해외 전개 임무 간 공중급유 임무를 최초로 완수하고 다윈 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KC-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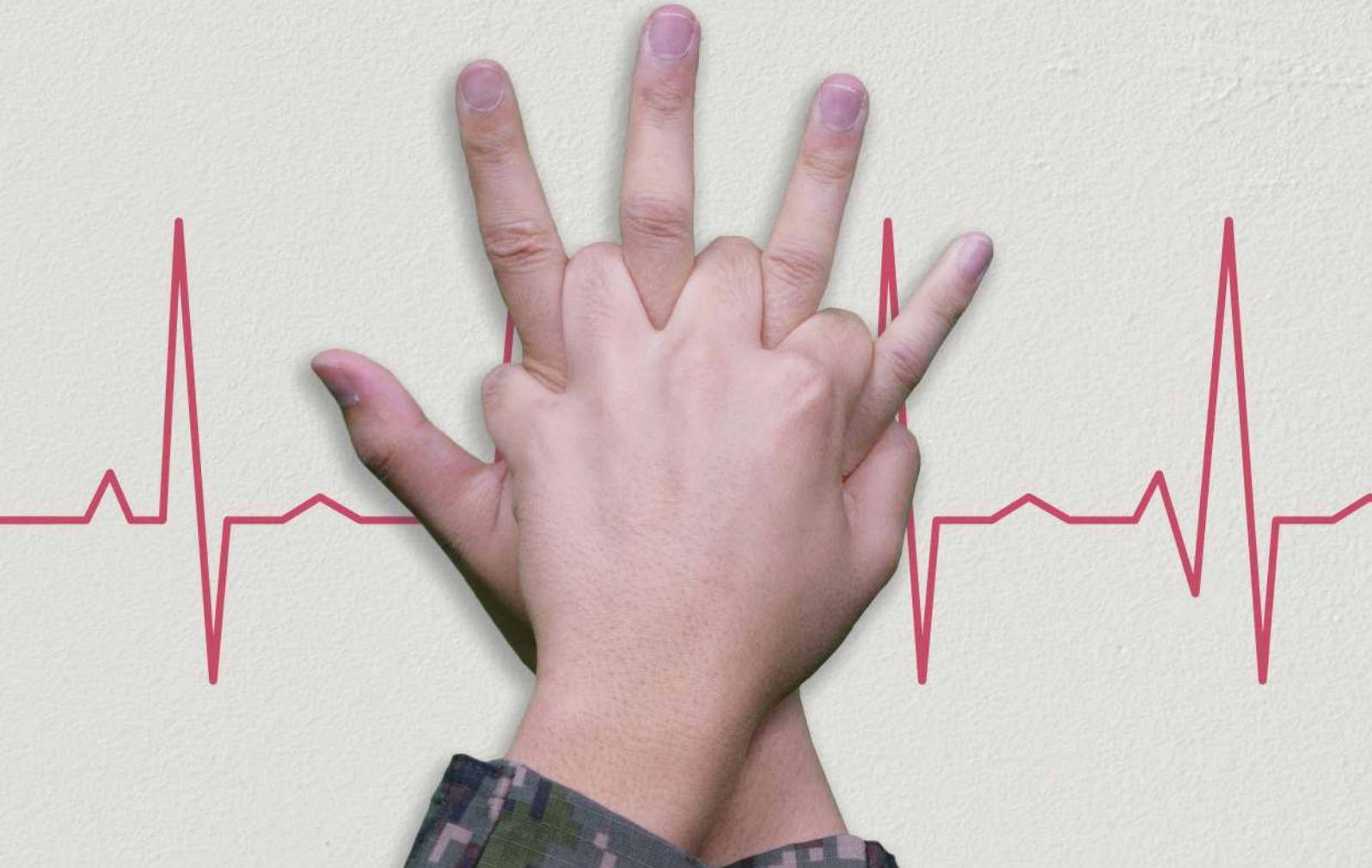
**AF KC-330 도입 이후 연합훈련 참가가 최초이기에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군의 KC-330은 2018년 1호기 도입 후 해외 파병 장병 수송, 코로나19 백신 수송, 교민 수송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Pitch Black 훈련에서 KC-330은 공중급유 임무를 위해 투입됐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급유통제사이기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성공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F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공군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공군이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며, 어떤 임무라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는 우리 공군의 노하우로 축적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중급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F**





## 생명을 다시 끈질기게 만드는 사람들, ‘공군 하트세이버’

생명(生命): 생물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생물은 태어날 때 단 한 번, 생명을 선물 받는다. ‘끈질기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오래가는 게 생명이라지만, 어떨 때는 그 수식이 무색하게도 허망하게 사라지곤 한다. 몸에 붙은 생명이 서서히 멀어져가려는 찰나, 누군가 나타나 심장을 다독인다. 그렇게 다시 생명을 끈질기게 만든다. 일면식도 없는 이가 쓰러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의식을 잃었을 때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 공군은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끈질기게 만드는 장병들을 ‘공군 하트세이버’로 선정해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공군 하트세이버 제도를 알아보고 2022 공군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장병들을 만나보자.

공군(공군본부 의무실)은 지난 2016년,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의식 회복과 생존에 기여해 공군 핵심가치 중 하나인 ‘헌신’을 실천한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공군 하트세이버’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소방청이 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제도를 통해 심정지 환자를 살린 구급대원과 국민을 격려한 것에서 착안해 공군 내에서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에 성공한 장병의 노고를 인정하여 선행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로 환자가 심장 기능을 회복해 의식을 되찾은 경우나 생명 구조에 기여했다는 군의관 혹은 의사의 인정이 있는 경우, 기타 주변인들의 목격과 증언이 있는 경우에 각 의무부대에서 추천을 받아 공군본부 의무실 심의를 거쳐 공군 하트세이버로 선정된다.

### 공군 하트세이버 선정 현황

연도	소속	계급	이름	선정 사유
'16년	제29전술개발 훈련비행전대	중사	이항복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남성을 목격해 CPR 시행 및 119구조대에 인계함.
	제11전투비행단	대위	김동현	서울행 KTX에서 호흡곤란 장병을 목격해 응급조치 후 119구조대에 인계함.
	제10전투비행단	상사	김성영	부대 목욕탕에서 의식을 잃은 동료 장병에게 CPR을 시행해 환자 의식 회복에 기여함.
'17년	제16전투비행단	대위	김석원	부대 대연병장에서 3km 달리기 체력검정 시행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에게 CPR을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의 후송을 도와 환자 의식 회복에 기여함.
		대위	김승우	
		상사	강경철	
		상병	장재식	
		상병	남동우	
제29전술개발 훈련비행전대	상사	신승경	청주의 한 체육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민간인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함.	
'18년	공군 제8785부대	중사	곽민철	강원도의 한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민간인을 발견하고 CPR과 119 구조요청을 통해 환자 회복에 기여함.
		하사	김태산	
		하사	유동은	
	제16전투비행단	병장	민경익	포항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민간인을 발견해 응급조치를 시행하여 환자 회복에 기여함.
	제11전투비행단	준위	김정섭	대구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민간인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CPR과 119 구조요청을 통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조속한 후송에 기여함.
	제17전투비행단	하사	홍현화	제주행 항공기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한 것을 목격해 신속한 상태확인 이후 CPR을 지속 시행해 착륙 후 제주공항 구조대에게 인계함.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준위	윤호상	수원의 한 테니스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목격해 신속한 환자 상태확인 이후 CPR을 시행해 환자 회복에 기여함.	
'19년	공군 제8546부대	원사	김성명	제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간인을 목격하고 신속한 환자 상태확인 이후 CPR을 시행해 환자 회복에 기여함.
		상사	김상진	
	제60수송전대	상사	황상진	
'21년	제10전투비행단	준위	황광섭	수원의 한 테니스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간인을 목격하고 신속한 환자 상태확인 이후 CPR을 시행해 환자 회복에 기여함.
		준위	최재형	
		상사	김철빈	
'22년	제17전투비행단	중사	공관호	부대 내 배드민턴장에서 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목격하고 신속한 환자 상태확인 이후 CPR을 시행해 환자 회복에 기여함.
		중사	서승이	
		상병	이희수	
제11전투비행단	상병	김동환	야간 근무 중, 근무 간부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는 것을 목격해 환자 상태확인 및 신고, CPR을 교대로 실시함.	

임무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공군 장병 2명이 올해 '공군 하트세이버'에 선정됐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공군 핵심가치 중 하나인 '헌신'을 실천한 이희수, 김동환 상병과 이들의 도움으로 두 번째 삶을 살고있는 임종문 원사를 만나봤다.



## '22년 공군 하트세이버 상병 이희수, 김동환

“공군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것보다 동료의 건강이 회복되어 더 감사합니다.”



###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작전시설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수, 김동환 상병입니다.

### **AF**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6월 21일 야간 근무 당시 저희와 임종문 원사, 김문지 중사님이 함께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에 임 원사님께서 동공이 풀린 채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김 중사님은 저희에게 즉각 CPR을 지시하시고 항공의무전대에 신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임 원사님을 눕히고 전투복을 벗겼습니다. 심장에 귀를 대보니 심장이 뛰지 않아 바로 CPR을 시작

했습니다. 서로가 번갈아 가며 CPR을 실시하고 지휘통제실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었죠. 이후 김 중사님과 함께 의무전대 요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부착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었으나 깨어나지 않아 급히 대구 파티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AF** 이 상병은 병원까지 동행했었죠?

네. 제가 구급차에 탑승해 함께 병원까지 갔었습니다.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의사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반장님께서 오셔서 제 상태를 보시더니 물골이 말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제야 제 모습을 보니 신발은 어디에서 벗겨졌는지 없었고, 양말은 다 젖은 채로 반쯤 얼이 나가 있었습니다.



**AF**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했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응급조치에 임했나요?

난생처음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본 것이라 겁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 중사님의 침착한 CPR 지시와 신고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입대 후 배운 대로 기도 확보, 가슴 압박, 인공호흡 등을 시행했습니다. CPR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 때문에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원사님의 생사가 결정된다는 생각이 들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AF** 공군 입대 후 받은 CPR 교육이 당시에 도움이 되었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단에서는 CPR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이뤄지고 자대 배치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공의무전대 주관으로 CPR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이 없었더라면 더 당황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AF** 임원사님의 의식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쓰러지시고 며칠간 의식이 없으셨을 때는 저희가 CPR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임원사님이 의식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죠. 그러던 중 반장님을 통해 임원사님의 의식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희 모두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고 저희의 작은 행동이 임원사님께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AF** 만약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이번 일과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처치 방법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아마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AF**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임원사님이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서야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임원사님 안부를 물으시고는 정말 잘 했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사무실 동료들도 저희를 치켜세워주시고 큰일을 했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AF** '공군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선 하트세이버 제도를 이번 일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인데 공군 하트세이버로 선정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것보다 임원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해 준 김문지 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트세이버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군인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전역 후에도 남을 돕는 사회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김문지 중사

##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임종문 원사



### AF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작전시설반 전력운영담당 임종문 원사입니다.

### AF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도운 사무실 동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쓰러졌을 당시 주변 사람들의 초동조치 덕에 지금 살 수 있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다들 매우 당황했을 텐데 처음 겪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응급조치를 잘 해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본인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며 힘든 일을 이겨내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AF 두 번째 삶을 살고 계신데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어도 저한테는 아무 일 없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울고 있는 딸과 아내를 보며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 덕에 얻은 두 번째 삶은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가족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AF 만약 쓰러진 사람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를 구해준 동료들처럼 당연히 저도 도울 겁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두 번째 삶을 살게 됐으니 저의 도움으로 인해 누군가가 두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F





# 공군 하트세이버가 알려주는 CPR 순서



1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응급의료체계에 신고하고 AED<sup>자동심장충격기</sup>를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 명이라면 한 명씩 정확히 지목합니다.

3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합니다.  
양 팔을 곧게 펴고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손바닥 뒤꿈치를 이용해 분당 100~120회 속도로 실시하며 약 5~6cm 깊이로 압박합니다.

4



인공 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환자의 기도를 열고 코를 막은 뒤 숨을 불어 넣으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가슴 압박-인공 호흡을 반복해 실시합니다.

5



패드를 정확한 위치에 부착합니다.  
우측 쇄골 뼈 아래와 좌측 가슴 하단 갈비뼈에 부착합니다.

6



절차대로 AED를 작동시킵니다.  
패드 연결선을 본체에 연결하고 음성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 Aero Detail

##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세계

###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

긴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겠다는 인류의 꿈은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기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회전익기는 속도와 비행성능 측면에서 한계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수직이착륙기의 개발 역사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



수직·수평비행을 위해 주날개 하부에 회전식 노즐 2개를 설치한 P.1127 시제기

간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각종 기상천외한 항공기 개념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수직이착륙기 또한 여러 가지 방식을 고안한 바 있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은 실제 비행이 가능한 수직이착륙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영국도 경쟁적으로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착수했다. 영국의 최초 수직이착륙 실험기는 1953년에 만들어졌지만 겨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후 1958년에 수직이착륙과 수평비행이 가능한 실험기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무장탑재 여력이 없었고, 구조 또한 실용적이지 못했다.

수직이착륙 전용 리프트 엔진을 탑재하지 않고도 수직으로 이착륙한다는 개념은 1960년에 탄생한 P.1127로 구체화됐다. P.1127의 성능은 상당히 실용적이어서 영국은 양산을 결정하고, 이름을 해리어로 명명했다.

해리어의 첫 양산형인 GR Mk 1은 1967년에 탄생했고, 영국 공군이 운용했다. 이후 엔진 추력을 증가시킨 해리어 GR Mk.3가 등장했다. 이 해리어를 미 해병대가 상륙 지원기로 채택한 것이 AV-8A다.

해리어 GR Mk.3, AV-8A는 수직이착륙 성능을 제외하면 전투기로서의 탑재량과 항속 성능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대폭적인 성능개량을 구상했지만 결국 예산문제로 취소하고, 주익 교체와 복합재 사용량을 증가시킨 AV-8B 해리어II를 개발했다. 해리어는 영국 공군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에서도 필요로 했다. 좁은 경항공모함 갑판에서 이착륙하기 위해 영국 해군은 FRS Mk.1 시해리어(Sea Harrier)를 추가적으로 개발했고,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했다.

해리어의 명성은 1982년에 발생한 포클랜드 전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포클랜드 전쟁에서 최대속도 마하 0.9(약 1,101km/h)의 해리어는 1대도 손실되지 않으면서, 마하 2(약 2,448km/h)급의 미라지Ⅲ 등 아르헨티나 전투기를 22대 격추하는 놀라운 전과를 거둔 것이다.



EAV-8B 해리어III+ 전투기

이러한 성과는 비록 해리어 전투기의 우수성만으로 빛어낸 결과는 아니었지만, 해리어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해리어는 걸프전에도 참전해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 지원기로 맹활약한 바 있다.

## 독일의 VJ 101과 VAK 191 전투기

독일은 초음속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상당한 열의와 투자를 집중했던 국가다. 1955년에 NATO에 가입하면서 새로이 개편된 서독 공군은 전술기의 핵심을 모두 수직이착륙기로 구성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꾸미었다. 긴 활주로는 적의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활주로 없이 야전에서 분산 운용이 가능한 수직이착륙기는 당시에 장점이 충분히 있어 보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독일은 전투기, 공격기, 수송기 등 3가지의 핵심 군용기를 모두 수직이착륙기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1960년대에 추진했다.

독일이 가장 먼저 개발한 기종은 VJ 101이었다. VJ 101에서 VJ는 수직이착륙 전투기(Vertikal Jäger)를 의미했다. VJ 101의 요구도는 1956년에 완성됐고, 본격적인 개발은 1959년부터 시작됐다. VJ 101은 처음부터 독일 공군의 최신편예기 F-104G를 대체하고자 개발되었기 때문에 작전 운용성능이 상당히 높았다. VJ 101에 요구된 작전반경은 54~270nm(약 97.2~486km), 최대상승고도 72,200ft(약 22km), 최대속도 마하 2.5(약 3,060km/h)였다. 당시 F-104G가 고도 50,000ft(약 15km)까지 도달하는 데 약 140초가 소요된 반면, VJ 101은 65,600ft(약 20km)까지 90초 이내에 도달할 것이 요구되었다. 마하 2.5 속도에 이 정도 상승 성능이라면 1960년대 기술 수준으로 최상급에 속하는 것이었다.

VJ 101의 수직이착륙 방식은 조종석 뒤에 직렬식으로 수직이착륙 전용 엔진을 2개 탑재하고, 후기연소기가 달린 엔진을 2개씩 회전형으로 날개 끝에 탑재하는 방식이었다.

VJ 101C X1 시제기의 첫 공중정지 비행은 1963년 4월 10일에 이루어졌다. 놀라운 것은 1964년에 시제기가 후기연소기 없이 마하 1.08(약 1,322km/h)로 음속을 돌파한 것이었다. 수직으로 이륙하여 초음속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주날개 끝에 경사각을 변경할 수 있는 엔진을 탑재한 VJ 101C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후기연소기가 부착된 X2 시제기는 원활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여 마하 1.14(약 1,395km/h)까지 기록했지만 결국 양산에 이르지 못했다.

VJ 101이 전투기 대체가 목적이었다면 VAK 191은 피아트 G.91 공격기 대체가 목적이었다. VAK 191에는 저고도로 침투하여 핵폭탄 1발을 적지에 투하하고 귀환한다는 핵 공격 단일 임무 수행이 요구되었다.

VAK 191은 영국 해리어와 유사한 방식의 추력편향식 엔진을 사용했다. 하지만 대형 엔진을 사용하여 항력이 증가된 해리어와 달리 독일은 소형 엔진을 사용하여 고속 성능을 추구했다. 부족한 수직 추력은 기체 전후방에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용 엔진 2개가 보완했다. 이러한 엔진 구성을 통해 VAK 191은 해리어와 달리 마하 1.2-1.4(약 1,469~1,714km/h)수준의 초음속 성능을 목표로 했다.

VAK 191에는 당시로서 최첨단이었던 전자식비행제어 기술까지 적용하려 했지만 기술적 성숙도가 낮아 결국 양산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독일은 수직이착륙기 개발의 꿈을 접었다.

## 프랑스의 미라지ⅢV 전투기



동체 중앙에 수직이착륙 전용 엔진을 탑재한 미라지ⅢV 전투기

1960년대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NATO도 초음속 수직이착륙기를 필요로 했다. 델타익 전투기 미라지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 닷소(Dassault Aviation)사는 NATO에 제안하기 위한 미라지ⅢV 수직이착륙기 개발을 시작했다. 미라지ⅢV의 엔진 수는 무려 9개이다. 수직이착륙 전용의 소형 엔진 8개를 중앙에 배열했고, 수평 비행용 엔진을 1개 탑재하도록 설계되었다.

1966년, 8개의 수직 엔진 덕분에 미라지ⅢV는 수직으로 떠올라 수평비행으로 전환에 성공했다. 그리고 수평비행에서도 마하 2.04(약 2,497km/h)의 최대속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초음속 비행은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나온 결과이고, 한 번의 비행에서 수직이착륙과 초음속 비행을 동시에 수행한 적은 없었다.

닷소사는 자체 자금을 투자해 미라지ⅢV 개발을 지속했지만 비행 시험 중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하자 1966년에 개발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미라지ⅢV 개발 취소 이후 약 40년 동안 다시는 마하 2급의 초음속 수직이착륙 전투기가 등장하지 못했다. 수직이착륙과 마하 2급의 초음속 비행은 그만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성능이었던 것이다.

## 러시아의 Yak-38과 Yak-141 전투기

러시아는 미국, 유럽과 더불어 초음속 수직이착륙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가 중 하나였다. 1967년 7월 도모데드보 에어쇼에서 이미 러시아는 고정익기로 수직 상승 및 공중정지, 수평으로의 전환 비행을 관중 앞에서 선보인 바 있었다. 당시 에어쇼에 사용됐던 Yak-36 ‘프리핸드’ 기종은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기술시범기 수준의 항공기였으나, 안정적인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 러시아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러시아의 수직이착륙 전투기 Yak-38

Yak-36 ‘프리핸드’에서 실증된 수직이착륙 기술은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Yak-38 ‘포저’ 개발로 이어졌다. 1975년부터 양산단계에 들어간 Yak-38은 1976년부터 소련 해군의 키예프, 민스크 등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운용을

시작했으며, 함대 방공문제가 절실한 소련 해군에 함대 방공 전투기, 대함 공격기, 정찰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Yak-38의 성공 이후 러시아가 준비했던 기종은 Yak-141이었다. 세계 최초의 실용 초음속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됐던 Yak-141은 1991년 파리 에어쇼에 공개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야코블레프 설계국의 홍보자료는 Yak-141에 대해 공중요격, 근접공중전 및 대지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초음속 전투기로 설명하고 있었다.

Yak-141은 초음속 성능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엔진에 후기연소기가 장착되었다. 후기연소기는 Yak-141의 가속성과 기동성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착륙 시 활주로나 항공모함 갑판 표면을 가열시켜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다.

1989년 3월에 초도비행을 실시한 Yak-141은 기존 Yak-38에 비해 개선된 성능을 입증했다. 특히 최대속도는 마하 1.7(약 2,081km/h)을 기록하여 최초의 실용 초음속 수직이착륙기가 탄생 되는 듯했다. 하지만 냉전 종식으로 러시아는 국방예산을 감축했고, 연구개발에 성공한 Yak-141과 많은 개발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말았다.

비록 양산에는 실패했지만 Yak-141에 적용됐던 회전 노즐(swiveling nozzle) 기술은 미국의 F-35B에 그대로 적용되어 최초 초음속 수직이착륙기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다.

## 미국의 XF-109와 F-35B 전투기

영화 『트루 라이즈』에서 비밀요원 아놀드 슈왈제 네거가 타고 등장한 ‘해리어’ 전투기는 수직이착륙기의 대명사이다. 하지만 제트기인데도 불구하고 해리어의 최대속도는 소리의 속도보다 낮다. 제트기의 최대속도가 음속을 넘어가자 항공 선진국들은 수직이착륙 성능과 초음속 성능을 결합하고자 경쟁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개발을 시도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이미 1953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직이착륙 실험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벨(Bell)사를 주목하고 1955년부터 자금을 투자했다.



XF-109 전투기 개념도

미 공군과 미 해군이 함께 자금을 투자한 이 전투기는 미 공군이 XF-109로 명명했고, 미 해군은 XF3L로 명명했다. XF-109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면서도 수평비행에서 마하 2.3(약 2,815km/h)의 초음속을 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초음속 달성을 위해 XF-109는 무려 8개의 엔진을 탑재하도록 설계됐다. 수평비행 전용 엔진 2개 외에 수직 전용 엔진 2개를 조종석 뒤에 넣고, 날개 끝에 경사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평·수직 겸용 엔진을 4개 탑재했다.

엔진 8개의 XF-109 전투기는 결국 1961년에 개발이 취소되었다. 기술적으로 무리한 면도 있었지만 F-5 전투기에도 탑재된 J85 엔진의 개발 지연이 반복되자 미 해군이 결국 1960년에 자금 투자를 취소한 것이다. 이어 미 공군도 1961년에 계획을 취소하면서 초음속 수직이착륙기 XF-109 개발은 중단되고 말았다.

프랑스의 미라지ⅢV와 미국의 XF-109, 러시아의 Yak-141 취소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마하 2급의 초음속 수직이착륙 전투기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마하 2급은 아니더라도 수직이착륙과 초음속 성능을 결합한 실용 전투기가 등장했다. F-35B가 바로 그것이다.

F-35B는 기본형인 F-35A를 토대로 단거리 이륙 및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만든 파생형이다.

F-35A와 비교하여 크기는 유사하지만 리프트팬 등 수직이착륙을 위한 장비가 추가되어 그만큼 기동성, 전투행동반경, 무장탑재량 등 성능이 감소했다.

F-35B와 F-35A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35A는 최대 9G의 기동이 가능한 반면, F-35B는 7G까지 기동이 가능하다. 또한 F-35A의 전투행동반경은 590nm(약 1,090km)으로 알려져 있지만 F-35B는 450nm(약 830km)으로 약 24% 감소했다. 무장탑재량도 F-35A에 비해 약 17% 감소했다. F-35A는 내부에는 2,000lbs급 정밀유도폭탄 탑재가 가능하지만 F-35B는 내부공간이 좁아져 1,000lbs급 정밀유도폭탄 탑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F-35A가 25mm 기관포를 내장한 반면, F-35B는 기관포를 내장하지 않아 필요시 외부에 25mm 건포드를 장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35B는 F-35A와 비교하여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긴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육상 운용을 위해 싱가포르 공군도 도입한 바 있고, 경향모와 같이 짧은 갑판에서도 운용 가능한 유일한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이기 때문에 F-35B 고유의 가치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F**



조종석 뒤에 수직이착륙 전용 리프트 엔진이 설계된 F-35B 구조도



**글쓴이 임상민 박사(『전투기의 이해』 저자)**

한국항공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KAI),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연구 및 개발을 맡았으며, 현재는 방위사업청 항공분야 전문관으로 항공 무기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투기의 이해』, 『항공기 체계효과도의 이해』 등 8권 저술, 1993년부터 항공/군사지, 항공/군사학회 등에 수백여 편의 원고 및 논문을 기고했다.

# AEROSPACE CONFERENCE 2022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항공우주무기체계 발전방향

2022. 9. 19(월) - 9. 20(화) | 세종 컨벤션센터



공동주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행사주관



참가신청

2022. 8. 16.(화) ~ 9. 5.(월) / lhsiks@af.mil(군), lhsiks@mnd.go.kr(일반)으로 소속, 직책, 연락처 및 참석일정 (예) 1일차 오전) 송부

행사문의

920-5712(군), 042-552-5712(일반) ※ 사전 참가신청자 오찬 제공



참가신청

# 무에서 유로

## 기창(旗槍) - 깃발 신호에 목숨을 걸다



글쓴이 소개\_『무예도보통지』에 담긴 무예24기를 28년 동안 한결 같이 수련하였으며, 무예를 통해 역사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시립공연단 무예24기시범단 상임연출로 활동하고 있다. 『정역 무예도보통지-정조, 무예와 통하다』, 『조선후기 무예사 연구』, 『병서, 조선을 말하다』,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등 1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군대에서 깃발은 심장이다. 부대 깃발이 꺾이는 것은 곧 부대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해당 지역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아군의 깃발을 세워 그 승리를 널리 알리는 전통이 현대전에서도 그대로 연출된다.

전통시대의 전투는 수천, 아니 수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졌다. 이때의 전투 상황은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숨 한번 쉬는 짧은 시간에도 수 없는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하늘에서는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앞에는 창칼이 번뜩이면 그 공포감에 제대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호령 소리도 통하지 않고, 고향도 들리지 않아 조직적인 전투가 이뤄지기 힘들었다.

그래서 군사들의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간단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군사용 깃발과 악기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신호용 도구들이었다. 이를 통하여 눈으로는 깃발을 비롯한 수신호를 보고, 귀로는 북소리와 징소리를 들으며 전투상황에 따라 군사들은 체계적인 전술행동을 펼칠 수 있었다.

旗槍  
俗稱短槍



조선 후기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기창 그림



조선 후기 전법서인 『병학지남』의 <출전수변설복도>. 각 방위를 나타내는 깃발로 부대를 구분하고 있다.

깃발은 그 크기와 색에 따라 방위를 상징해서 소속부대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깃발이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것에 신호 의미를 담아 군사들의 행동을 통제했다. 조선 후기의 깃발을 이용하여 군사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면, 립(立)·언(僣)·점(點)·지(指)·마(磨)·휘(麾)·권(捲)·응(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립(立)’은 평상시 깃발을 세워 놓은 것으로 부대 정렬, ‘언(僣)’은 깃발을 눕히는 것으로 부대 휴식, ‘점(點)’은 깃발을 해당 방향에 기울이다가 지면에 닿기 전에 다시 들어 올리는 것으로 부대 명령 수행, ‘지(指)’는 깃발을 접하여 내렸다가 지면에 닿을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부대 이동, ‘마(磨)’는 깃발을 왼쪽으로 휘두르는 것으로 부관 소집, ‘휘(麾)’는 깃발을 오른쪽으로 휘두르는 것으로 부관 해산, ‘권(捲)’은 깃발을 말아 두는 것, ‘응(應)’은 상관의 깃발 신호를 받아 반복하는 것으로 다시 휘하의 부관들에게 반복 전달하는 것이다.

현대에도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을 이착륙시킬 때 신호수가 좌우의 손에 주간에는 작은 깃발을 사용하고,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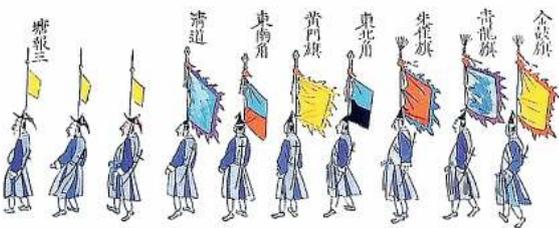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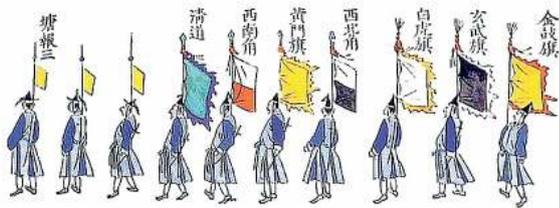
간에는 작은 경광등을 이용하여 전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국제신호기(International Signal Flag)라고 하여 마치 만국기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신호를 함정에 붙은 깃발을 통해 주고 받기도 한다.

무선통신이 고장 났을 경우, 선박과 선박 사이의 교신뿐만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 선박과 육상 신호소 사이의 교신에도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이다. 기의 종류는 영어의 알파벳기 A~Z까지 26개, 0~9까지의 숫자기 10개, 제1~3의 대표기 3개, 회답기(回答旗) 1개로 모두 40개의 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해당 알파벳기를 이용하여 UY: 본선은 훈련 중임, IT: 화재 발생(소화훈련), JW: 침수 발생(방수훈련), NC: 조난(비상이함훈련)을 알리는 등 다양한 신호 깃발들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신호기의 종류가 복잡하지만, 조선시대에도 새로 입대한 군사들을 위해 깃발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일종의 군가(軍歌)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깃발의 움직임은 장수의 명령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전달 신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전통시대 가장 용감하고 전투력이 뛰어난 군사는 최전방에서 전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들고 부대원을 통제하는 기수(旗手)였다.

예를 들면 행군하는 도중 전면에 숲이 우거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는 청기(靑旗)를 펼치고, 물이나 늪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흑기(黑旗)를, 앞에 적의 병마(兵馬)가 보일 때는 백기(白旗)를, 산이나 험한 곳이 막혀 있을 때는 황기(黃旗)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연기나 불과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홍기(紅旗)를 펼쳐 후미의 군사들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거리가 멀거나 지형지물 등으로 깃발의 신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진군할 때는 반드시 북소리에 맞춰 걸음을 걷게 했다. 북소리가 천천히 들리면 군대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고, 북소리가 빨라지면 군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형태였다. 여기에도 보통 4단계로 구분해



1795년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담은 <화성반차도>에 다양한 군사용 깃발이 보인다.

군사들의 속도를 조절할 정도로 세분화했다. 반대로 전술적으로 퇴각하거나 부대 교체를 명령할 때는 징을 비롯한 금속성 악기를 주로 활용했다.

또한 빠른 현장 지휘를 위해 긴 나팔이나 태평소 등을 이용해 좀 더 정교하게 군사들의 행동을 독려했다. 여기에 전통적인 깃발을 더했기에 군사들은 매 순간 눈과 귀를 쫓듯 세우고 전투를 해야만 했다. 만약 상급부대에서 하급부대로 내려오는 신호체계를 무시하거나 빠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휘관은 군법에 따라 처리됐다.

만약 맹렬하게 공격해야 할 상황에서 기수의 실수 혹은 죽음으로 깃발 신호가 잘못 퍼져 나가면 그 전투는 패배하고 만다. 그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도 전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지휘통신체제를 타격하여 대응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선제적으로 펼쳐지는 전술이기도 하다.

특히 군사 무기로 활용한 기창(旗槍)은 2m 내외의 짧은

창에 붉은색이나 노란색의 작은 깃발을 달아 전투에 사용하였다. 이 무예는 소규모 단위 부대의 신호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였고, 작은 깃발을 이용하여 적 기병이 탄 전투마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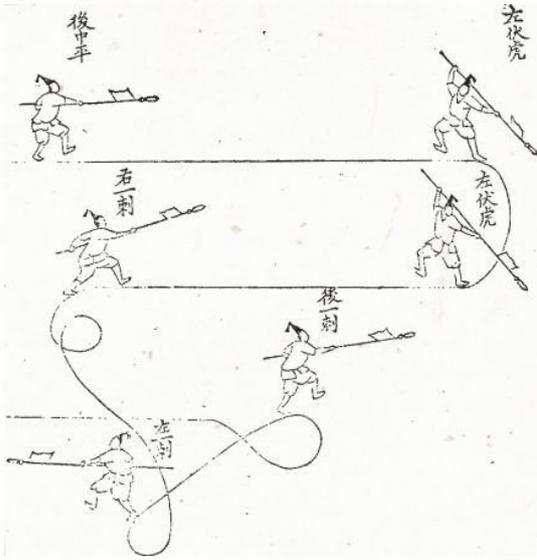
기창의 핵심적인 자세는 짧은 창이라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빠르게 연속으로 찔러 들어가는 것이다. ‘중평세(中平勢)’라고 하여 상대의 몸통을 향해 찔러 들어간 후 바로 연속으로 찌르는 자세이다. 이후 창날을 수평으로 하여 상대방의 목이나 눈을 가로로 베듯이 움직이는데, 역시 두 번을 연속으로 굽는다. 그것이 ‘진왕마기세(秦王磨旗勢)’다. 이렇게 기창을 가로로 베듯이 움직이면 기창에 묶어 놓은 깃발이 펴리며 상대방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창날을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내리꽂으며 낮게 밀고 들어오는 적의 무기나 발을 빠르게 연속으로 찌르는 ‘복호세(伏虎勢)’를 취해 만약 적의 무기가 가로로 쳐들어올 경우에 효과적으로 몸통을 방어한다. 이후 바로 창날을 사선으로 높이 세우며 마치 전투마에 올라탄 기병을 찌르거나 전투마의 목을 아래서 위쪽 사선 방향으로 찔러 들어가는 듯한 ‘퇴산색해세(堆山塞海勢)’를 취한다. 기창의 짧은 깃발로 전투마의 시선을 교란시키고 이후 빠르게 말의 목을 찔러 기병을 낙마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창은 4m 이상의 긴 창이므로, 손을 잡는 창 허리 부분이 길어 기병과의 충돌 시 창 자루가 쉽게



『무예도보통지』의 기창 자세 중 사선으로 낮게 찔러 들어가는 복호세



복호세로 낮게 찌른 후 빠르게 사방으로 회전하며 찢러 들어가는 기창의 연결자세

부러져 찢르기보다는 창날을 이용한 견제 혹은 내리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기창, 즉 단창은 빠르게 이동하여 적이 탄 말의 목이나 배를 찢러 기병을 낙마시키는 전술에 자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전후좌우 사방을 향해 기창을 크게 휘두르며 빠르게 돌아 찢르는데, 창 길이의 장점을 이용하여

반경 3m 내외의 적의 무기를 밖으로 쳐 내거나 찢러 들어가는데 효과적인 자세를 취한다. 특히 빠르게 방향을 바꿔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손을 바꿔 잡는 '환집(換執)' 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강력하게 기창을 찢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찢르는 방향에 따라 아랫 손을 빠르게 윗 손으로 바꿔 잡는 것이다.

이렇듯 기창은 짧은 창이 갖는 장점에 깃발을 더해 시각적으로도 유용한 단병접전용 무기로 활용되었다. 또한 기창의 창날 아래에 'L'자형의 짧은 꺾쇠를 부착하여 어두운 밤에 이곳에 등불을 대달아 군사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로 핵심 장수인 주장(主將)이 머무는 막사 앞에 설치하여 불빛의 개수나 등의 색깔로 '부관들을 소집한다', 혹은 '전술회의 중이므로 접근을 금지한다' 등의 신호를 표현하였다.

특히 기창은 국왕이나 장수의 의전용 행렬에도 자주 활용하였다. 깃발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고대부터 황제나 제후가 직접 이끄는 친위군은 중앙을 상징하는 황색을 사용하거나 특이한 별자리를 기창의 깃발에 수놓아 전투를 독려할 때 적극 활용하였다. 깃발에 담긴 상징성은 현대 군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AF



기창 시범 중 회전하며 적을 찢러 들어가는 준비 자세로, 상대의 무기를 회전하며 걷어내고 전후좌우를 찢른다.

제41화    황영임 조리사

#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월간 『공군』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에서 32년 동안 살고 있는 58년생 황영임이라고 합니다. 울릉도라고 하면 익숙하지만 또 생소한 지역으로 느껴지실 텐데요. 저는 지난 2008년부터 울릉도에 위치한 공군 제8355부대에서 민간조리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약 14년간 울릉도 공군 장병들의 삼시 세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만족스러운 얼굴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야기 해주는 부대원들 덕분에 늘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를 만큼 오랜 시간 근무하다 보니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추억을 회상해볼 수 있어 좋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모든 분들이 풍성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릉도 공군 장병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황영임 조리사

## 엄마 같은 언니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7명의  
동생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어요.”

지금 사는 곳은 울릉도이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경남 하동입니다. 8남매 중 맏이로 태어나 늘 7명의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막냇동생을 낳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를 도와 동생들에게 음식을 해 먹여야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동생들은 맏이인 제가 키워야 했기에 어머니는 제게 음식 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요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명절이 오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부침개, 잡채, 나물 등을 직접 만들어 동생들을 먹이곤 했는데 빵 둘러앉은 동생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였답니다. 지금도 동생들은 저한테 “언니는 그때 꼭 엄마처럼 우리를 챙겨줬어. 그게 정말 고마워.”라고 이야기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요리를 하기 위해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황 조리사

**공군과의  
인연이 시작된  
곳, 울릉도**

“공군에서 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동 출신인 제가 울릉도로 오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울릉도로 오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32년 전, 울릉도로 시집을 왔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저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아 고민을 하던 중 한 지인을 통해 울릉도에 있는 공군부대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기에 힘들지 않았지만, 당시 어렸던 자녀들을 떼어 놓고 일을 하러 다니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보수였지만 어린 아이들 간식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계속 일해 온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웃음)

그동안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겨울이 되면 눈이 아주 많이 온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 때문에 미끄러운데 오르락내리락하는 길까지 험해서 사륜구동이 아닌 차로는 다니기도 힘들 정도죠. 요즘에는 관광객들도 많아지고 순환도로가 뚫려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교통편도 안 좋고 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눈이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참 험난했답니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어가다 엉덩방아를 찧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지금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부대에서 유니목이라는 제설차를 이용해 눈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제가 사는 마을 바로 옆까지 부대 버스를 지원해줘 출퇴근도 한결 편해졌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맛집을 반복해  
갔었죠.”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장병들을 위한 식단을 짤 때는 장병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병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뭔지 파악하고 식단에 반영합니다. 물론 균형 잡힌 영양도 함께 챙기죠. 아이들은 갈비탕, 제육볶음, 매운 갈비찜, 탕수육 등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고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황 조리사가 급양병과 함께 계란프라이를 만들고 있다.





황 조리사가 환한 미소로 장병들을 맞이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일 고기를 줘도 또 고기를 찾을 만큼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웃음) 아무리 정성을 들여 음식을 해줘도 고기가 없으면 실망하는 아이들을 위해 스파게티, 마라탕 같은 음식도 근래 신메뉴로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급양병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저에게 건의하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마라탕 같은 생소한 음식은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레시피를 검색해 공부한 뒤 메뉴화하곤 합니다. 제가 인터넷이 미숙해서 레시피를 잘 못 찾을 때면 우리 급양병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메뉴는 감자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우리 수송반장 이우상 상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먹어본 감자탕 중에 가장 맛있다고 한 달에 감자탕만 3번 나와도 좋다고 할 정도라니까요. 감자탕이 부대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요리에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도동항 근처 한 감자탕집을 갔는데 그 집 감자탕이 정말 맛있어서 그 맛을 우리 부대 장병들에게도 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맛을 흉내 내기 위해서 같은 집을 반복해 가며 어떤 비법이 있는지 나름대로 연구했답니다. 남들이 보면 과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조리사로서 제가 해야 하는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감자탕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감자탕 요리 비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등뼈 핏물을 빼기 위해 저녁 조리 전 물에 담가 놓고 다음 날 아침에 한 번 더 핏물을 빼줍니다. 그 후 끓는 물에 핏물을 완전히 빼주고 나서 월계수 잎, 대파, 양파를 넣고 푹 끓입니다. 된장, 마늘, 들깨가루 등을 넣은 양념장을 넣고 시래기와 토란 줄기를 함께 넣어 주면 깊고 시원한 감자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맛있는 감자탕 어떠세요?



식사하는 장병과 답소를 나누는 황 조리사

## 음식은 정성이 우선

“나와 가족이 먹는  
다는 생각으로 요리  
해야 해요.”

요리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위생과 안전입니다. 식사는 부대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특히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식중독 위험이 높아져 평소보다 위생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부대 식구들이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고 이야기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함께 일하는 급양병들이 생활관에서 ‘오늘 밥이 참 맛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전해 줄 때도 아주 행복하고 뿌듯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정성을 다해 요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위생적으로, 맛있게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제 말에 동감해줘요.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로 이곳 같은 격오지 부대에서는 맛있는 밥 하나가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과 울릉도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을 꾸준히 연구해 식탁 위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번 추석에는 오랜만에 휴가를 가서 연세가 많은 어머니를 모시러 갈 계획입니다만 평소 추석이 되면 가족 생각이 많이 날 장병들을 위해 차례도 지내고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가족과도 같은 장병들을 위해 정성 다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떤 아이들은 휴가를 나가는 날에도 밥을 많이 먹고 나가곤 해요. 휴가 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텐데 왜 굳이 여기서 많이 먹고 가느냐고 물으면, 휴가 나가면 부대 음식이 생각난다고 말해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정성을 알아봐 준 아이들에게 참 고맙죠.

몸이 힘들지는 않냐고요? 물론 식당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다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또 신앙을 갖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누군가 힘들면 옆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옆 사람을 위해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성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이웃들에게도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을 해다 드리곤 합니다. 제 작은 노력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리의 모든 과정에 앞서 꼼꼼히 손을 씻는 황 조리사

## 아쉬움을 남기고 떠날 때까지

“늘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어요.”

울릉도는 참 좋은 곳이에요. 제가 태어난 하동도 바다가 있어 좋았는데 울릉도에도 바다와 절경이 있어 참 좋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는 공해 때문인지 머리가 매일 멍하고 몸이 좋지 않았는데 울릉도에 오고 나서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 전입 온 병사들도 육지에 있을 때는 몸이 안 좋았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많이 나아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울릉도 특산물은 정말 많지만 그중 오징어와 명이나물은 정말 맛있습니다. 울릉도 자연을 먹고 자란 나물과 해산물의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 울릉도에서 함께 근무해서 그런지 우리 부대원은 서로 매우 끈끈하고 정이 많습니다. 대대장님부터 병사들까지 서로 소통하고 화합이 잘 되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황 조리사가 고지대에 있는 작전지역에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케이블카에 음식을 싣고 있다.

제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부대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건강 챙겨서 오래 근무하라고 말해주면 피곤함이 싹 가시죠. 저도 건강이 주어지는 한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저보고 70세가 되어도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일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근무하고 싶어요. 아쉬움을 남기고 그만두는 것이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에게는 늘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하고 전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 너무 고기만 먹지 말고 채소도 함께 먹으라고도 해주고 싶네요.(웃음) 또 제가 만든 음식을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는 말도 빼고 싶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한 아이들이 아직도 명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부를 물어오는데, 그럴 때면 이곳에서 쌓은 인연에 감사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울릉도 공군 장병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장병들의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 온 정성을 바쳐 맛있는 밥 한 끼 한 끼를 대접하겠습니다.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울릉도를 떠올리실 때, 대한민국 동쪽 하늘을 수호하는 이곳, 공군 제8355부대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AF**



## 블랙이글스 피라미드 상공 에어쇼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8월 3일(수),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 지구(9 Pyramids) 상공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며 전세계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 한·미 공군 쌍매훈련

한·미 공군(韓 FA-50/美 A-10)은 8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쌍매훈련을 실시했다.

\* 쌍매훈련: 한·미 공군이 1997년부터 함께 실시해 온 연합훈련으로 양국 전투조종사들이 서로의 기지에 전개하여 공중작전과 전술을 상호 교류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







## 군산기지 대비태세 현장지도

정상화 참모총장은 8월 12일(금), 군산기지를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대응 체계와 군사대비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조국 영공방위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종사를 비롯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증식



정상화 참모총장은 8월 5일(금), 공군호텔에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과 김보현 고문(예비역 공군 준장) 일행을 접견하고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증식을 가졌다. 참모총장은 순직 조종사 유가족에 대한 장학 및 원호사업을 지원하는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증한 ㈜대우건설 측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ADD) 방문



정상화 참모총장은 8월 19일(금),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방문하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과 함께 공군-국방과학연구소 간 주요 현안 및 업무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공중전투사령부

### 팥빙수 데이

공중전투사령부는 8월 10일(수), 영공방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팥빙수를 제공하며 한여름의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기를 증진하는 팥빙수 데이를 운영했다. 장병들은 시원한 팥빙수를 맛보며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제1전투비행단

###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제1전투비행단은 8월 4일(목), 농번기를 맞아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을 실시했다. 장병들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부대 근처 농가를 찾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벗길, 고추 수확 등 농촌 작업을 도우며 지역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 제3훈련비행단

### 수중 불발탄 처리 훈련

제3훈련비행단 폭발물처리반은 8월 8일(월), 와룡스포츠펀터 수영장에서 수중 불발탄 처리 훈련을 실시했다. 물속에 있는 불발탄을 발견한 폭발물처리반 요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발탄을 인양해 제거하는 수중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했다.



## 제8전투비행단

### Healthy 명성인 선발 캠페인

제8전투비행단은 7월 5주부터 11월 5주까지 총 19주에 걸쳐 Healthy 명성인 선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장병과 군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매주 뒹굴음 및 필라테스 등 운동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인원에게는 단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 제15특수임무비행단

###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프로젝트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의무대대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일환으로 근무환경별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항공의무대대는 의료의 질 향상 활동팀을 구성해 1탄(심정지), 2탄(열사병), 3탄(화상/열상), 4탄(절단/압박상)으로 진행했으며 프로젝트별로 맞춤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상황에 필요한 응급처치법을 교육했다.



## 제19전투비행단

### '22년 Pitch Black 훈련참가 출정식

제19전투비행단은 8월 15일(월), 호주에서 이뤄지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Pitch Black 출정식을 거행했다. 단장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들을 위해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무운을 빌어주며 환송했다.

# 한 달, 한 권



## 다섯번째 산

작년 시월 초부터 35일 동안, 나는 프랑스 생장(Saint Jean Pied de Port)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대략 800km의 거리를 온전히 두 발로 걸었다. 흔히 ‘산티아고순례길’이라 부르는 몇몇 코스 중에 대표적인 길이다. 자신의 짐을 지고 매일 25km 이상씩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거리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쨌든 그 길을 다녀와서 거의 일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무더위에 지친 여름을 보낼 무렵 가까운 후배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후배는 자신도 그 길을 걸어보고 싶다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어땠어요? 그 길에서 뭐 좀 가져왔어요?”

후배는 내가 느닷없이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순례길을 완주해 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도 알고, 그 길에서 어떤 삶의 이유를 찾고자 했던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가 던진 질문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신에게도 가장 궁금하고 중요했던 화두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갔다 와 봐.”라는 공허한 한마디 외에 별다른 말을 건네주지 못했다. 사실 나 역시도 스스로에게 누차 되물었던 물음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병률 시인의 ‘가을 나무’라는 시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의 단어와 마주쳤다.

“뭔가를 알고 싶을 때도

알아야 하는 것이 진실이 아닐 때에도

새가 열매를 물고 날아가는 그 쪽 방향을 보라”

‘산티아고순례길’은 스페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걸어가는 편도의 여정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먹고 잠들었던 마을과 순례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주민들과 매일 이별하는 여정을 반복하게 된다. 순례자들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짐을 꾸리고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마을 한 귀퉁이를 지날 때면 으레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마을의 창문들이 노란 전등을 흔들며 안녕을 고한다. 또 하나의 신화를 가슴에 묻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남겨진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배웅하는 세상의 이별과 달리 여기서는 떠나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을 향해 이별을 한다. 때때로 마을 사람은 ‘산티아고대성당’에 도착하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쪽지를 쥐어주기도 한다. 거기에는 신에게 당부하는 바람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사막의 바람은 우리가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을 이미 오래전에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살아있는 매 순간 기억할 것이고 당신은 나의 꿈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늘 걷고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길에 나타나 줘서 고마워요.” p308

운명처럼 만나는 책이 있다. 파울로 코엘료의 『다섯 번째 산』을 읽고 나서 삶의 열개가 조금 더 명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엘료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각자 ‘자아의 신화’에 이르는 진정한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말문을 연다. ‘자아의 신화’,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신화’, 그 어마하고 위대한 서사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다.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한 독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이 책은 그 불편한 독자에게 당당하게 묻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의 삶 속에 신이 존재하느냐고 아니면 계속 그렇게 모른 채만 할 것이냐고?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저버리는 건 어쩌면 하느님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느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던 시절의 꿈을 심어 놓고는 다른 일을 보러 떠나 버렸다.” p47

나 역시, 이제 방향을 돌려 신과 마주해야겠다. 비겁하게 신의 등 뒤에서 저질렀던 온갖 악행과, 신의 존재를 의심하며 등을 돌렸던 무모와 무지에서 기어나와 신 앞에 마주서야 한다. 두렵더라도 때론 신과 맞서 싸워야 하고, 지치고 힘들면 나를 안아달라고 떼를 써야 한다. 그럴 수 있을 때, 엘리야와 함께 다섯 번째 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신화를 쓰며 살고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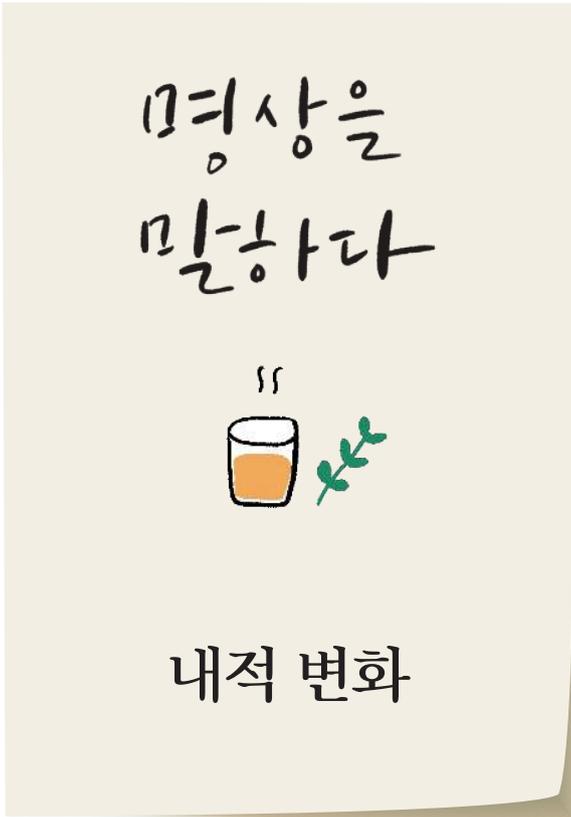
“높은 곳에 오르니 모든 것을 자그맣게 볼 수 있어. 산에 오르면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슬픔도 대단치 않아 진단다. 우리가 얻은 것이나 잃은 것이 무엇이든 그저 저 아래에 남아 있지.” p322 AF



『다섯번째 산』  
파울로 코엘료 지음  
문학동네 펴냄



글쓴이  
현재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옛날에 정기적으로 방문객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유별난 현자가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온갖 의문과 문제들을 지닌 채 그 현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루는 몇 명의 방문객들이 현자를 찾아갔더니 현자가 자신의 앞에 매운 고추들을 담은 접시를 두고는 계속해서 매운 고추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방문객들은 어리둥절해서 왜 그렇게 매운 고추를 먹고 있는지 현자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고추들을 먹으면서 매운맛을 참고 있지만, 조만간 고추에서 단맛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더 할 수 없이 완벽하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매운 고추를 씹으며 불편한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언젠가는 달콤하게 변할 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그렇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 완벽한 외적 행복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외적인 것들은 이와 같이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일 뿐, 내가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motivation)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굳건하고 지속적인 결심입니다. 문제들을 발견하고도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연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려는 내적인 힘을 경험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지속하려는 내적 동기가 없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겠지요. 그렇기에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내적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변화하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동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부여하면서 그 변화를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속적인 내적 동기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변화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도 저절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비로소 한 발짝을 내디딘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록 느리고 불확실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후퇴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적 변화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든 생각으로든 자세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단순한 원인-결과 관계로만 간단히 압축해 버리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내가 처한 상황을 진실로 파악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때에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으로는 혼자만의 숙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 강의 청취, 독서 또는 명상 등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하는 것 역시 내적 동기일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성질을 알고자 하며, 자신의 마음 구조를 탐사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을 인격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 상태가 ‘나(me)’에게 일어나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아(ego)’만을 키우는 것일

뿐, 오히려 마음에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마음을 스스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취급하십시오. 우리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의 맨 밑바닥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으로 더욱더 깊이 침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고요함(stillness)을 경험한다면, 더 이상 인위적으로 할 일도, 달리 갈 곳도 없을 겁니다. 베트남의 승려인 틱낫한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집(home)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내적 힘과 굳건하고 안정된 확신을 개발해 나갈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지점부터 우리는 보다 섬세한 마음의 영역들을 알아차려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는 말하자면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고요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적 깊이와 통찰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지요.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함이 일상적인 경험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명상가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AF**



###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 영화로운 나날



## 『비상선언』, 끊임없이 현실을 소환하는 재난

'비상선언'이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기장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언하는 비상사태를 뜻합니다. 영화 『비상선언』에서 하와이로 향하던 비행기도 생화학테러를 당하고 비상선언을 합니다. 여객들로 가득한 공항에서 테러범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비행기를 찾습니다. 그저 실험실의 쥐처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싶었던 테러범으로 인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설렘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퇴로도, 탈출구도 없는 상공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죽어 갑니다.

사건 대부분이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탓에 영화는 세트 분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종의 밀실극입니다. 때문에 관객들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100% 핸드헬드(카메라를 어깨에 들쳐메고 손으로 그립을 잡은 채 찍거나, 휴대용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는 촬영 기법)로 촬영되었습니다. 또 후반부 극적인 착륙 신을 위해 적합한 기종도 따로 있었죠. 에어버스사의 항공기는 핸들을 스틱으로 움직여서 시각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기에 영화 속 비행기는 반드시 보잉사의 777이어야만 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의 비행기 무덤에서 비행기를 해체 후 공수해 보잉 777로 재조립했고, 짐벌을 장착해 승객 역할을 한 배우들을 태우고 촬영했습니다. 비행기가 요동치는 장면에서는 “카메라를 360도로 100번은 돌렸다”는 한재림 감독의 말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은 비행기에서 일어난 재난 상황을 체험합니다. 추락 직전까지 고꾸라지는 가속도를 느끼고, 기내 무중력 상태에서 위아래가 뒤바뀐 채 곤두박질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다른 여름 블록버스터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이러한 스펙터클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제작이 시작된 만큼 영화 안에서는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극장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영화를 보는 우리와 달리 사람이 북적이는 인천공항과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에

대한 생경함은 바이러스가 공포의 숙주가 되면서 더 커집니다. 테러범은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기내에 분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며 공기 정화가 되지 않는 밀폐된 환경에서 더 잘 퍼진다는 것です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바이러스가 영화 안에서 사람들을 해치는 동안 영화 밖의 관객들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마스크를 끼고 영화를 보는 아이러니 역시 공포의 재료가 됩니다.

『비상선언』은 테러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재난을 다루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소환합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되어가는 사람들과 그들을 태운 비행기로 인해 패닉에 빠진 사회는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상황과 다르지 않고,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갇힌 승객들은 대형 해운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이러스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고 난 뒤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 어디에서도 생화학테러를 당한 비행기의 착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서울로 회향한 뒤에는 SNS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을 받아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하늘에서 호위하지만 땅에는 착륙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관객에게 묻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혼자만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배척할 것인지, 땅 위에 있다면 바이러스가 두려워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지 말이죠.

『비상선언』의 선택은 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초유의 재난 상황 속 주인공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

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테러의 실마리를 찾은 형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비행기의 기장과 승무원은 목숨을 걸고 승객을 지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하죠. 한재림 감독은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물음에서 주인공들의 동력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직업 정신을 뛰어넘는 수고와 책임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만약 『비상선언』의 비행기에 타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지상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참모습은 능력이 아닌 선택에서 나타나는 법입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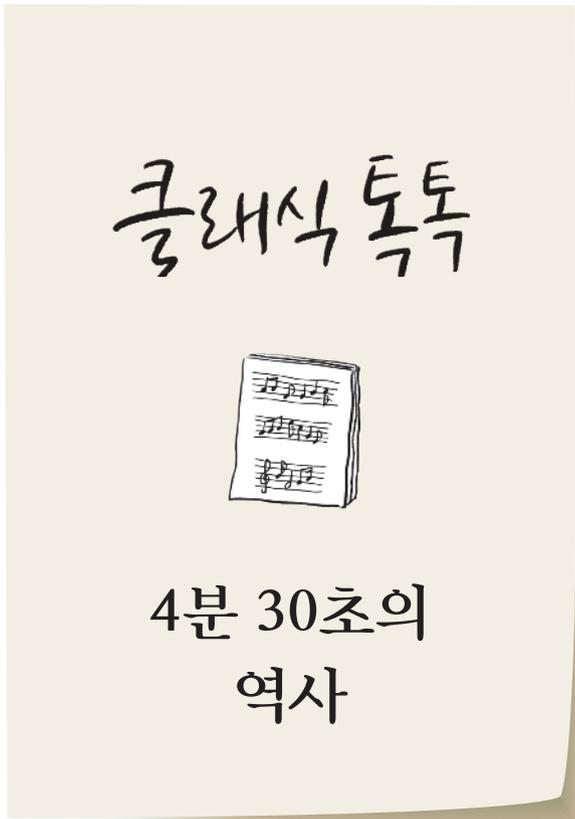


영화 『비상선언』



###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예전에 교양 강의에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왜 노래 한 곡의 길이는 대체로 3~4분 길이일까?’

그보다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3~4분 길이인 것에 이유가 궁금하지 않냐고 화두를 던져보았다.

대부분 돌아오는 답은 ‘3~4분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한 길이’이지 않느냐는 막연한 추측이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3~4분이 인간에게 가장 듣기 좋고 편안하다는 학문적 근거는 없다. 그저 3~4분이 가장 ‘익숙한’ 길이기 때문이란 답이 비교적 가깝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음악은 음식처럼 매일 섭취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무선 스트리밍으로 접속해서 원하는 음악을 골라 듣고 별점을 매기며 인기를 측정한다. 이런 일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음악의 휴대가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졌다.

과거엔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연주회장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던 추세가 축음기의 발명으로 가정에서도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변화했다. 녹음이 가능해진 건 19세기 후반이었는데 최초의 음원은 에디슨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동요 가사 ‘메리에겐 어린양이 있었답니다 (Mary had a little lamb)’였다. 그리고 이후로 전설적인 테너로 남은, 그러나 당시엔 신인이었던 엔리코 카루소의 목소리로 남겨진 오페라 아리아들이 최초의 음반이 되었다.

녹음된 곡들은 오페라 사랑의 묘약의 ‘남몰래 흐르는 눈물’, 오페라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 등등 10곡 남짓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굳이 ‘테너’의 오페라 아리아가 최초의 음반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테너들은 밀도 높은 고음을 파워풀하게 표현해 인기가 많았지만, 연주자 처지에선 에너지 소모가 많았고, 그런 이유로 화려한 장식음과 긴 변주 구간을 포함하는 소프라노의 아리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고 굵직

한’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초반 벨칸토를 지나 낭만 시대 후반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대체로 3~5분 사이였다. 바로 이점이 최초의 음반녹음에 테너의 아리아를 선택한 이유다.

당시 축음기에 거는 음반을 SP 음반(Standard Play record)이라고 불렀는데 이 레코드는 분당 78회전을 했다. 그리고 녹음이 가능한 시간은 최대 4분 30초였다. 그것도 LP(Long Play record)라고 불리는 33회전 음반이 나타나기 전까지 무려 71년 동안(1877~1948) 그랬다. 71년 동안 음악의 녹음은 딱 4분 30초까지만 가능했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음악의 ‘기승전결’ 구조를 가진 성악곡, 딱 테너 오페라 아리아였다.

이 녹음으로 신인에 불과했던 테너 엔리코 카루소는 단숨에 명성이 오르고 이후에는 전설적인 테너로 기억되게 된다. 그가 받은 출연료는 100파운드였지만 당시 제작사인 그라모폰은 15,000파운드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나 오페라 팔리아치의 ‘의상을 입어라’라는 아리아를 녹음한 음반은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20세기 초반의 음악들, 특히나 관현악 소품들은 그래서 흥행과 보급을 위해 레코딩을 염두에 두게 되었고, 특히나 곡 길이를 4분 30초 이내로 맞추는 데 주력했다. 이를 풍자하듯 로이 해리스(Roy Harris)라는 작곡가는 플롯과 현악 4중주를 위한 작품을 작곡했는데 제목을 아예 대놓고 ‘4분 20초’로 이름 지었다.

이제 레코딩은 향후 악기의 주법과 작곡의 추세까지 바꾸게 된다. 마이크가 발명되기 전까진 집음을 위해 나팔관과 진동판을 썼는데, 현재처럼 정교하게 녹

음되기보단 파형이 큰 음들만 녹음에 잡혀서 둔탁했다. 음정의 높이도 일정하게 연주음이 잡히지 않고 거칠게 잡히니 바이올린의 경우는 비브라토(바이브레이션; 소리를 일정한 파형으로 반복 파장을 주는 것)를 더 활발히 사용해서 음의 밀도를 높이거나 음의 피치를 높여 잡는 등의 주법들이 발달했다. 또 원래는 5분에서 6분 길이의 곡들을 레코딩을 위해 일부를 자르거나 전체 템포를 빠르게 잡아 곡 길이를 단축시켜서 수록 가능하게 만들었다. 당시에 그런 추세들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축음기가 발명되던 당시 오케스트라 기준음은 국제협약으로 435hz였는데, 축음기 발명 후엔 440hz로 조정되었고, 현재는 445hz까지 피치를 높여 잡는 음반도 나타났다. 그래서 같은 곡이라도 2차대전 전의 음반과 현재의 음반은 반음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크다. 녹음 제한 4분 30초라는 71년간의 영향은 이토록 막강했다.

흔히 어떤 아티스트가 음원을 발표할 때 앨범이라고 한다. 당시 10~12인치 레코드판을 보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사진앨범 재킷에 보관하기 시작해서 ‘앨범’은 사진과 음반을 동시에 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1948년 이후 LP판은 한 면에 25분을 수록할 수 있었고, 양면을 모두 사용하면 한 시간 가까이 음악을 녹음할 수 있고, 현대의 디지털음원은 사실상 물리적 제한이 없는데도, 71년을 지배한 4분 30초 분량의 ‘한 곡’의 길이란 개념은 현재까지 이어져서 요즘도 통상적인 한 곡의 길이는 4분 내외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류가 갖게 된 습관이라 볼 수 있겠다. AF



### 글쓴이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전공 만점으로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모교인 목원대학교에서 재직하며 수백 편의 오페라 주역과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 TRENID

## 트 렌 드 가 보 인 다

## Z세대에게 아날로그란?

디지털에 익숙한 Z세대,  
불편한 아날로그에  
새로움을 느껴

아날로그적 경험을  
디지털 세상에서 공유하기도



### 아날로그 vs 디지털

LP판, 필름 카메라, 손목시계. 이런 철 지난 물건들이 Z세대가 주목하면서 부활하고 있다. Z세대는 대략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출생한 세대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향유했다고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다. Z세대가 위와 같은 소위 반(反)디지털적인 사물들에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상이한 방식의 기술이라고 이해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아날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온도나 시간을 하나의 선상에 연속적으로 기록, 표현하는 온도계나 시계가 아날로그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 사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를 아날로그 기술로 표현하는 데 한계에 이르자 모든 정보를 0과 1로 나누어 기록하는 디지털 기술이 등장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수많은 정보를 가장 간단한 단위로 쪼개서 기록, 저장함으로써 엄청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디지털 기술이 없었다면 Z세대에게 일상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영상, 게임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즐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성세대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세상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을 접한 Z세대에게 디지털 세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환경일 뿐이다.

### 아날로그적 경험은 짜릿한 과정의 경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세상이 공기처럼 당연한 Z세대가 턴테이블에 바늘을 조심스럽게 얹고, 원하는 음악을 찾아 들어야 하는 LP판을 사기 위해 줄은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바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에 필름을 조심스럽게 넣고, 감고, 찍어서 인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사진을 볼 수 있는 필름 카메라를 중고 마켓에서 검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디지털 세대의 이런 낡은 물건에 대한 관심은 40~50대의 기성세대가 젊은 날에 대한 그리움으로 찾는 오래된 물건에 대한 관심, 즉 레트로적인 현상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기성세대는 젊은 날의 일상을 복기시켜주는 도구로 LP판을 찾지만,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에 익숙한 Z세대에게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 또는 사진 한 장을 보기 위해 불편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다려야 하는 LP판이나 필름 카메라는 새롭고 진기한 경험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정교한 단계 하나하나가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디지털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과정에 대한 경험인 것이다.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혹은 찍은 사진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기대감은 디지털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짜릿함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Z세대가 주목하는 아날로그적 경험의 대상은 다양한 방향으로 지속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메모장이나 블로그가 아닌 종이 노트에 손글씨로 편지나 일기 쓰기, 지도 앱에도 표기가 안 된 골목길의 맛집 찾기 등 불편하고 낡은 방식으로 간주하던 일상의 영역을 아날로그적 과정으로 경험하기가 놀이화되고 있다.

###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보완적 관계

디지털 세대에게 이러한 아날로그적 경험은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완성된다. 아날로그적 사물은 디지털과는 달리 만질 수 있는 물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좋아하는 음악은 스마트폰에 음원으로 저장되어 있지만 LP판은 자신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를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한다. 디지털 사진은 파일로 저장되어 공유되지만 필름 카메라로 찍은 한 장의 사진은 찍은 순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아날로그적 사물의 이러한 물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소셜 미디어를 통

해 표현하는 Z세대에게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자신이 소장하는 LP판,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Z세대의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되고 공유되어 취향과 관심을 드러내 보여준다. 최근 Z세대들의 종이 책이나 종이 신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물성으로 존재하는 사물을 통한 아날로그적 경험의 추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책에서 느낄 수 없는 종이 책의 냄새, 읽은 사람의 흔적마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종이 책은 “책을 읽는다”라는 경험을 새로운 차원에서 맛보게 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 주는 좋은 소재가 된다.

기성세대가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빠져 많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서도 전통 시장 돌아보기를 여행에서 빼놓지 않고 즐기는 것처럼, Z세대에게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상반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는 일상의 다양한 욕망을 채워주는 보완적 관계로 공존하고 있다. **AF**



### 글쓴이

세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테네시대학교에서 광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코래드(Korad, Ogilvy & Mather)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으며, 2003년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카피라이팅, 광고심리, 디지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치고 있다. 민간·공공 영역의 소통 메시지 전략 수립을 도와주고 있다.

#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그림 | 강은정 작가

##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다행이다

- 이적 <다행이다> 중에서 -



가수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멜로디도 좋지만, 특히 가사가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노래입니다. 가사 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다행이다’라는 말은 힘든

多	幸
다	행
많을	다행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다행(多幸)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을 무사히 넘겼을 때 사용합니다. 다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행운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을 불행한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어쩌면, 가장 불행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불행을 맞지 않은 것만 해도 행복한 순간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어떤 일이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잃어버렸던 소중한 기념 반지를 우연히 발견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것 역시 다행의 순간일 수도 있죠. 좀 더 소박하게는, 무더운 여름, 고장난 줄 알았던 생활관의 에어컨이 다시 켜지는 순간이 다행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순간들이 행복이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서는 벽찬 현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삶에 가끔 찾아오는 소박한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소한 행복들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다행은 무엇일까요? 이적의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즉, 다행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죠. 위로와 축하는 호혜적이어서, 위로와 축하를 베풀면,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도 덩달아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의 순간을 공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힘든 것도, 위로받는 것조차 두렵고 부끄럽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공군인 여러분! 다행의 순간을 함께 느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만약 없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많습니다.** AF

# 공군인의 편지

글 | 병장 김경내(공군제91항공공병전대 공병대대)

## 인생의 무게

제작년 겨울이었나요, 엄마와 저는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죠. 그때 공군병 합격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나름 기뻐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엄마의 얼굴에는 기쁜 마음 대신에 슬픈 마음이 더 많이 있어 보였어요. 제가 군 입대를 하면 엄마 혼자 지내야 했으니까 그랬겠지요. 엄마 혼자서 지내시면 혹시 우울증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입대 이후에 매서웠던 추위를 견디며 훈련을 받던 날 중에 가끔 엄마와 효 전화를 하며 서로 안부를 묻곤 했지만, 받았던 엄마의 대답 속에는 항상 슬픔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집 근처에 사는 이모께도 편지를 써서 엄마를 꼭 잘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써서 좋은 공기를 맡아보지도 못한 채 힘겨운 훈련들로 지친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엄마에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단지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했을까. 엄마도 쉬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을 텐데 저를 키우시느라 그동안 희생하셨던 수많은 시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전역 후에는 입대 전

보다 성장한 모습이 되어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훈련 소 수료 이후 저는 그 마음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제가 해야 할 운동과 공부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며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지금까지 느꼈던 인생의 무게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할까 생각하기도 했지요.

이제 전역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맞닥뜨린 인생의 시련들을 강하게 극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지막까지 사회에 나가 수많은 시련을 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울게요. 엄마, 늘 감사하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편지양식은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읽는 공군

글 | 일병 심창범(제3미사일방어여단)

## 능력주의의 폭정 속 인류가 지향해야 할 길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경쟁을 극복하고 최종 승리하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선 공정함에 대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었는지,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은 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능력과 노력은 승리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펼쳐 성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은 지금의 사회를 이끄는 능력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더 나아가, 능력주의는 과연 정의로울까요?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능력주의의 결점과 능력주의적 교만에 기초한 허구에 주목합니다. 부의 양극화와 그 기반을 견고하게 만드는 고학력의 세습화, 승자의 오만함과 패자의 굴욕감 사이 팽팽한 사회적 긴장감 등 능력주의에 의해 굳어진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가 현대사회에 불러온 각종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전작에서도 그랬듯 능력주의 신화를 보기 좋게 걷어차 주지는 않습니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는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의 실마리를 마련해 보도록 디딤돌을 놓아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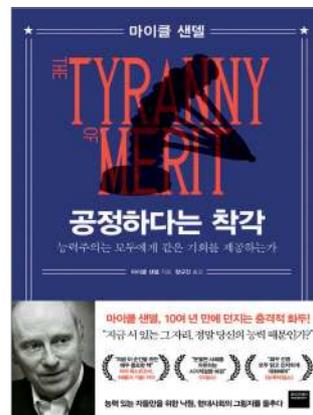
책 속 여러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능력주의는 장점도 있지만,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공평한 기회제공과 능력 발휘의 보장 장치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통제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잘못이라 말하고, 성공한 자들로부터 받는 모욕을 정당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능력주의의 어두운

이면은 민주주의를 부패시키고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나의 몫인 걸까? 샌델 교수는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며, 나의 노력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만난 것은 시대를 잘 만난 행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받은 사회적 명성과 대가가 아주 우연한 행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 집니다. 이런 겸손의 정신이야말로 성공의 거친 윤리에서 돌아와, 능력주의 폭정을 뛰어넘는 시민적 덕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주의를 강구하는 동안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생각을 게을리했을지 모릅니다. 능력주의를 종교처럼 받아들인 이유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부당하게 괴롭히지 않는 사회, 각자의 개성과 꿈이 세상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말이 불편한 지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방법에 대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를지,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을지. 이 책을 읽

으며,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능력주의의 폭정은 과연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말입니다. **AF**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지음  
와이즈베리 펴냄

#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 감흥이 없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 하루 동안 가장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또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범위를 넓혀서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하고 슬픈 일을 물어 본다고 해도 우린 바로 답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어린 아이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답을 내뱉을 것이다. 아이들도 쉽게 이야기할 만큼 간단한 질문에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 감흥을 잃었기 때문이다.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도, 감흥이 없다면, 어떤 일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감흥은 오늘날 찬밥 신세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가장 쉬운 조건으로 흔히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 번째, 안주하지 않는 성격이다.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단조로운 삶에 쉽게 싫증을 느끼고 항상 새로운 일과 참신한 경험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이루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매사에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하나의 일이나 분야에 빠지면 완벽하게 달성할 때까지 몰두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좋은 사람이다. 이들은 흔히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감흥은 부합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깊이 감동하여 일어나는 감정인 감흥이 오히려 없는 삶이 더욱 성공에 유리하다.

두 가지 기준에서 봤을 때, 현대사회에 가장 적합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 유명 요리사 앤서니 보데인이다. 앤서니 보데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 요리를

## 행복하기 위해선 잃어버린 감흥 찾아야

### '안정'과 '여유'는 감흥 되찾을 열쇠

직업으로 삼고 전 세계를 누볐던 사람이다. 1년 중 250일 동안 해외에 있을 정도로 그는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경험했고, 미디어를 통해 그의 일생이 소개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돈과 명성, 풍부한 경험까지 모두가 가졌던 그의 삶은 모두가 꿈꿀 만했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삶을 살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점차 삶에 감흥을 잃어갔다.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삶을 포기했다.

가장 행복해 보이던 보데인이 정작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 우리가 간단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모두 삶에 감흥이 없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혹은 SNS를 통해 나타나는 자극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일상을 보다 무미건조하게 만들어버린다. 잃어버렸던 감흥을 되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바로 안정과 여유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평온하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 그리고 사소해보이는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 말이다. 감흥이 다시 살아날 때, 단조로워 보이던 우리의 매일이 다채로운 감정들의 색깔로 물들 것이다.

감흥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감흥이 넘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겪은 슬픈 일에는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반대로 행복한 일에는 함께 기뻐할 수 있다. 감흥에서 공감은 비롯되고, 공감에서 바로 이해와 존중이 시작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마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상에 대한 감흥이 아닐까?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보고, 수확하는 가을,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도 풍성한 감흥이 넘치길 바란다. AF

# 마음의 소리

## 박양희

haha04\*\*@hanmail.net

큰아이의 공군 복무를 계기로 매월 『공군』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전역했지만 깔끔한 디자인의 『공군』은 여전히 반갑네요. 성당에서 만난 중3 남자아이 엄마와 대화하다 아들이 공군 사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공군지를 전해주었어요. 진로를 고민 중인 청소년들에게, 아직 철모르는 어린이들의 인생 설계에 『공군』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 언덕 너머의 꿈이 내 직업이 된다면 그 또한 멋진 일일 테니까요.

(AF. 공군과 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 공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씬터 등 『공군』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공군 입대라는 꿈을 꾸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공군』일 것입니다. 국민과 현역장병, 그리고 미래의 정예 공군인에게 언제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공군』이 되겠습니다. )

## 김철홍

stone61\*\*@naver.com

블랙이글스 특집으로 꾸며진 8월호를 읽고 편집진의 참신한 아이템과 기획능력에 나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네요. 그동안 블랙이글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여러 번 봐왔지만, 이번처럼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 에어쇼에서 태극을 수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내용을 시작으로 행사에 참가한 비행팀장 인터뷰를 통해 준비과정과 참가 소감을 듣고, T-50B 분해부터 시험비행까지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점과 현장을 방문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이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영국 교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임무 요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AF. 10년 만에 영국 하늘을 수놓은 공군의 자랑, 블랙이글스의 모습을 담은 기사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항공기 분해부터 시험비행까지 우리 공군 손으로 이뤄낸 에어쇼 참가 과정 사진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국위 선양에 앞장서는 공군의 모습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이춘임

leechoon12\*\*@naver.com

8월호 「내 옆의 공군인」 코너의 박영관 이발사님 기사를 흐뭇하게 읽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장병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발 봉사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주인공이 참으로 자랑스롭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기사 속 주인공 처럼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묵묵히 맡은 위치에서 열정을 다하는 특별한 공군인, 이색 공군인들의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AF.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공군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는 울릉도 공군 장병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한 조리사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이어질 「내 옆의 공군인」 코너를 기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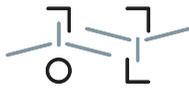
구독문의 QR코드



마음의 소리 QR코드

마음의 소리 | 월간 『공군』 홈페이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업로드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공군인의 편지 | 공백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후 E-mail 전송  
(인트라넷: kyhmm6262@af.mil / 인터넷: afzine@korea.kr)



5 3 1